

# 임효준, 작년 6월 중국 국적 취득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中 대표 출전은 불투명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중국 귀화를 결심했다고 밝혔던 임효준(25)이 지난해 6월 이미 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17일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해 6월 3일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임효준의 중국 귀화 소식이 처음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 6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다.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임효준의 매니지먼트사는 "임효준은 당연히 한국 선수로서 태극기를 달고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나서 올림픽 2연패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다."

하지만 재판이 길어지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도 있어 다시 한 번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는 꿈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귀화 결정 배경을 전했다.

하지만 임효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5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직후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사건이 벌어진 2019년 6월 이후 1년 만이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임효준이 선수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중국 측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관왕에 오르는데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과시한 임효준을 영입하면 전력이 강해지는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임효준은 중국의 러브콜에도 한국 대표로 뛰기를 바라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임효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중국 귀화를 추진하면서도 한국에서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언제든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생각이었었다.

그러나 임효준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자 결국 귀화를 최종 결심했다.

임효준은 중국 빙상경기연맹이 아닌 중국 허베이성 빙상연맹과 플레이코치 계약을 맺었다. 임효준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로 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지 3년이 지나야 한다.

임효준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마지막 국제대회는 2019년 3월 10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다. 이 때문에 2022년 2월 4일 개막해 20일까지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

예외 조항은 있다. 관련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국제연맹(IF)이 합의해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한국은 사실상 대한체육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IOC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승인 하더라도 대한체육회가 허락할 가능성은 낮다. /뉴시스

## 올해 KPGA투어, 17개 대회 총 상금 135억원 규모 진행

2021년도 KPGA 코리아투어가 17개 대회 총 상금 135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한국프로골프협회는 17일 새 시즌 KPGA 코리아투어 일정을 발표했다.

개막전은 다음달 15일 오크밸리CC에서 진행되는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으로 확정됐다. 11월4일 서원밸리CC에서 치러질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포함해 총 17번의 경쟁이 벌어진다.

확정된 총상금은 135억원이다. 현재 협의 중인 2개 대회가 성사될 시 상금 규모에 따라 2018년 143억원(17개 대회)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상금액을 기록할 수도 있다. /뉴시스

김염병 의심되면 '1339'로



환하게 웃는 추신수

SSG 추신수가 17일 오전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앞서 덕아웃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선수 인권침해·권익보호 교육 '활발'

도체육회, 도청 실업 5개팀 대상 스포츠인권향상 교육에 이어 오늘 체육회 소속팀 교육... 올해는 지도자 대상 인권 교육 강화

전북체육회가 선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인권 교육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도 체육회에 따르면 도청 실업팀인 양궁·체조·태슬링·컬링·빙상 등 5개팀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2월에는 전문지도자와 선수트레이너(AT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도 진행했다.

18일에는 도 체육회 소속인 육상·수영·양궁·카누·롤러·세팍타크로·철인3종·바이

애슬론 등 8개 실업팀 지도자와 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및 성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도자와 감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선수들의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소속된 전문 강사진들을 스포츠인권익센터 위원으로 위촉했다. /장은성 기자

## 축구협회 "손흥민 한일전 합류 여부 19~20일 결정"

손흥민(29·토트넘)의 한일전 합류 여부가 오는 주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7일 "토트넘으로부터 손흥민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구단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한 뒤 19~20일께 차출과 관련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

은 3월 A매치 기간인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 대표팀과 친선전을 치른다.

벤투 감독은 지난 15일 손흥민을 포함한 한일전 소집 명단 24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열린 아스널과의 복원전 데비에서 손흥민이 허벅지 뒤근육(햄스트링)을 다쳐 전반 19분 만에 교체돼 변수가 생겼다.

협회는 곧바로 토트넘 구단과 소통을 시도했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토트넘에서도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뉴시스

## PD수첩 "기성용 성폭력 목격 증언자 있다"

"법정에서 해당 사실 증언 원해 방송에 담지 않아"

'PD수첩'이 축구선수 기성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TV 'PD수첩'에서는 기성용을 포함해 스포츠 스타들의 학교폭력 제보자 피해 증언이 공개됐다.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제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 소속 박지훈 변호사는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기성용을 포함한 가해자 2명은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며 "이들은 (가해자의) 중요 부위 모양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 인터뷰에 응하기도 한 제보자들은 기성용의 가해 행위가 주로 합숙소에서 이뤄졌으며 6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제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고 나니 우리가 가해했던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알겠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도 피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 용기를 내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반면 기성용측 변호사는 이들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많은 제보들이 있었다"며 "증거를 공개할 경우 진술 번복 등 (기성용 측의)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법정에서 깔끔하게 가져가서 하는 게 공정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PD수첩' 제작진은 "기성용 측이 이들에게 성폭행한 사실을 목격해 증언자가 나왔다"며 "증언을 확인했지만 이들이 법정에서 해당 사실을 증언하길 원해 방송에는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시스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